

〈第六回 會員研究發表會 發表論文〉

蘇聯經濟學에 있어서의 「價值論」研究(下)

張 贊 燮

(關東大學·專任講師)

차 례

- | | |
|----------------------------|-----------------|
| XI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1) 解釋 | 과 剩餘價值 |
| VII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2) 消費 | IV 스탈린의 맑스經濟學解釋 |
| 財價格과 生産財價格 | X 價值法則과 蘇聯經濟學者 |
| VIII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3) 利潤 | VI 結 言 |

VI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1) 解釋

前述한바와 같이 商品의 價值는 그것을 生産하기 위하여 支出된 社會의 必要勞時間에 의해서 決定된다. 이것이 所謂 價值法則인 것이다.

그런데 蘇聯의 經濟學者들이 蘇聯經濟에서 價值法則을 云謂하는 것은 一見 不可解한 것 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맑스가 說破한 價值法則이란 資本主義의 商品經濟下에서 支配하는 法則이며 資本主義社會가 아닌 蘇聯經濟에서 社會의 必要를 위해서 生産物이 生産되고 있는 社會에서는 妥當할 수 없는 法則이다. 商品生産에 있어서의 價位法則은 元來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價格의 形成과 所得의 分配의 說明原理로서 맑스에 의하여 說明된 것이다.¹⁾

그런데 蘇聯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意味의 商品生産은 行하여 지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價值法則의 妥當性を 論하는 그 自體가 無意味한것 같이 생각된다.

그렇다면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價格을 支配하는 法則은 어떻게 說明하면 되는 것인가? 勿論 蘇聯에는 財貨에 價格이 있으며 勞動에 賃金이 支拂되며 企業에는 利子가 計算된다. 資本의 一部分에는 利子가 計算된다. 企業은 生産費를 計算하며 利子を 豫定하여 經營된다. 勿論 이들 價格 賃金 利子 利潤 生産費 등은 競爭市場에서 自動적으로 成立되는 價格이 아니라 公定價格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價格은 費用計算의 基礎가 되고 있는 同時に 費用을 根據로 하여 生産財의 價格이 定하여진다. 이와같은 價格에 立脚해서 經濟計算을 行한다. 經濟計算은 어떠한 不合理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의 原因으로서 價格에 不合理한 點이 있다고 생각된다. 蘇聯의 經濟學者들은 價格에 대하여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와 같이 用途選擇의 指標로서의 役割을 期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價格의 合理的인 構造의 基礎를 確立하기 위하여 價格을 支配하는 客觀的인 根據로서 價值法則을 내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價值法則의 要求에 合致하지 않는 價格이 國民經濟에 不合理한 價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價值法則의 作用 및 經濟建設에 있어서의 그 利用問題는 많은 未解決의 問題를 남기고 있다는 것은 蘇聯邦科學아카데미 經濟研究所에서의 討議에서 認定되고 있는 바다. 이 價值法則中에서 어떤 命題들은 새삼스러히 加一層 正確하게 定義되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때로는 適當한 改訂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公公然히 言明되고 있는 것이다.

註 1) 여기에 대해서는 Nicolas Spulber의 다음과 같은 言及을 想起한 必要가 있다.

"In like other theories of value, Marx's labor theory is not an explanations of exchange ratios but a tool devised for examining social relationships among within a given System of production" (The soviet Economy, p. 231)

이와같은 價值法則에 未解決點이 남아 있으며 改訂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는 蘇聯經濟에서의 價值法則은 資本主義와 相異하여서 相異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 相異한 意味에 各種의 解釋이 내려지고 있는데서 由來하는 一種의 混亂에 起因하는 것이다.

價值法則에 대하여서 이루어지는 첫째의 解釋은 商品生産下에서 商品價値의 크기는 그 商品의 生産에 支出된 社會的으로 必要한 勞動量에 의하여 規定됨으로써 交換된다고 하는 가장 基本的인 解釋인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資本主義나 蘇聯經濟社會의 差別없이 商品生産 一般에 걸친 價值法則을 設定하는 것이다. 即 첫째의 解釋은 商品의 價値가 그 生産에 社會的으로 必要한 抽象의 人間勞動의 量에 의해서 定하여지며 商品은 그 價値를 表現하는 價格으로서 交換되는 것을 意味한다.

두째번의 解釋은 蘇聯經濟에서는 商品의 價格은 價値대로는 定하여지지 않고 價値와 價格과는 반드시 乖離된다고 보는 見解이다. 勿論 이와같은 解釋에 있어서도 價格을 價値에 되도록 가깝게 하는 것은 原價 探索性 勞動支出의 效率 基本投資, 새로운 技術의 採用, 生産組織의 새로운 方法採用의 效率를 보다 훌륭하게 計算하여서 計劃化하는 것을 可能케 하여 經濟計算制가 가지는 物質的인 刺戟을 強化시키는 것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價格都賣價格, 調達價格, 小賣價格을 價値와 꼭 一致시켜야 된다고 努力한다는 것은 決코 意味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絶對的으로 正確하게 價値를 計算하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價格이 價値에서 背離하는 것은 價值法則이 作用하는 不可缺의 特徵인 것이다. 이와같은 背離는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計劃性을 가지고 蘇聯經濟의 諸法則에 立脚해서 蘇聯經濟全體의 利益이 되도록 行하여 진다는 것이다. 둘째번의 解釋은 端的으로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商品이 價値대로의 價格을 가지지 않는 것을 意味한다.

이 두 解釋은 一見하여도 矛盾인 것이다. 이와같은 矛盾은 마치 맑스의 資本論에 있어서 單純商品生産의 경우의 價值法則과 資本主義商品生産에 있어서의 生産價格의 法則과의 矛盾과 相通된다.

이 矛盾을 解決하기 위하여 셋째번 解釋이 나온다. 이 解釋은 總價値와 總價格이 같다는 맑스의 解釋의 應用인 것이다. 이와같은 解釋法에 의한다고 한다면 個個의 商品의 價格은 그 價値에서 背離하여서 어떤 것은 價値보다 높다. 그러나 價格의 모든 것을 合計한다면 價値의 合計와 같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論法으로서 蘇聯經濟에 있어서 價値總額이 價格總額과 같다는 解釋이 應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크로론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蘇聯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計劃性을 가진 價格形成의 메카니즘은 實現되는 社會的 生産物의 價格總額과 價値總額이 必然的으로 같게 된다는 것을 社會的인 規模에서 保障한다.¹⁾

코로론도는 1955년에는 2,330億루블의 去來稅와 887億루블의 工業利潤의 總額, 合計하면 3,217億루블에서 重工業은 다만 535億루블의 利潤과 얼마 안되는 去來稅를 實現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總計의 例를 들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重工業이 工業全體에서 生産되고 있는 剩餘生産物價値의 5分の 3을 만들고 있으면서 自己生産物의 價格으로서 6分の1을 實現하지 못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以上에서도 明白히 나타난바와 같이 生産手段의 價格은 價値보다 낮으며 消費財의 價格이 그것을 相殺할만큼 價値보다 높아지는 것이나 總體的으로 觀察한다면 價値總額과 價格總額과

註 1) 木原正雄 ibid, p. 44.

는 一致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價値總額이 價格總額과 一致한다는 一部 經濟學者들의 主張에 反對하는 學者도 있다.

바추린도 價格이 總價値에 一致되는 條件下에서만 商品生産에 社會的으로 必要한 勞動支出에 應하여 諸商品이 交換될 수 있다는 것을 認定하면서도 戰後 數次에 걸쳐 小賣價格이 引下된 結果 現在로서는 生産手段을 包含하는 全商品의 總價格은 그 價値總額以下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消費物資의 價格은 그 總價値에 거의 比等하든가 或은 價値以上이라고 하더라도 重工業生産과 農業原料의 價格은 價値보다 낮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같은 意見은 콘드라체프에 의해서도 支持를 받고 있다. 콘드라체프는 價格이 價値에서 背離하는 것은 價値法則이 作用하는 不可缺의 特徵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現實에는 一般的으로 價格總額과 價値總額의 絶對的인 一致란 存在하지 않으며 다만 近似的인 一致가 있을 수 있는 것 뿐이다.”¹⁾

이들學者들은 앞서 코론로드가 主張한 相殺說을 否定하고 다만 消費財에 있어서만 兩者의 一致를 認定하고 生産財에 대해서는 이것을 認定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은 解釋은 곧 다음과 같은 네번째의 解釋을 誕生시킨다. 이러한 解釋은 곧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純소한 商品生産이 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計劃經濟라는 規定에서 導出된다. 여기에 의한다면 價値法則은 商品生産의 形態를 取하는 消費財에 있어서는 어느程度 生産의 規制者의 役割을 하는 것이지만 國營企業에서 生産되며 그 사이에서 流通되고 있는 生産財에 대해서는 生産의 規制者로서의 意義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生産의 規制에 관한 이와같은 限定은 1952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明示되고 있다. 스탈린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law of value has no regulary function in socialist production since this ‘regulatory’ role is assumed by the planner who sets the plan targets himself independently of prices”²⁾

이렇게 言明한다고 하여서 스탈린이 價値法則의 影響力까지 無視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價値가 存在하지 않는다면 原價도 貨幣도 存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生産手段은 다만 商品의 外被를 입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主張하고 있으며 價値法則은 다만 賃金を 通하여서만 生産에 作用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의 追從者인 오스트로비차노프는 蘇聯經濟에 있어서 商品生産이 存在하고 있는 限 商品의 生産과 實現이 勞動의 社會的으로 必要한 支出에 立脚해서 行하여지는 것을 要求하는 價値法則도 作用하는 것이지만 盲目的인 勢力으로서 支配하는 資本主義와는 달라서 蘇聯經濟에서는 價値法則의 作用은 經濟의 計劃의 指導의 實踐가운데서 認識되며 考慮되고 利用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價値法則은 生産의 規制者인것을 그만두고 國民經濟의 計劃性을 가진 均衡적인 發展法則에 이 役割을 양도하였다. 價値法則은 一定한 限界下에서 다만 小商品섹타와 資本主義의 섹타에 있어서만 生産의 規制者로서의 役割을 다 하였다.”³⁾

價値法則은 蘇聯經濟의 規制者의 役割을 遂行하는 것은 아니지만 蘇聯經濟發展에 本質的인 影響을 미친다고 解釋되기도 한다. 가토프스키는 商品이 社會的으로 必要한 支出을 나타내는 價格으로서 팔리는 限 個別的 支出이 社會的으로 必要한 支出보다 낮은 企業은 보다 많은 利潤

註 1) 木原正雄, ibid, p. 209.

2) Joseph Stalin,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1952)

3) 木原正雄, ibid, p. 209.

을獲得하게 되며, 個別的 支出이 社會的으로 必要한 支出보다 높은 企業은 損을 내서 赤字를 낸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價值法則은 資源의 節約, 向上된 生産方法의 採用 先進的인 技術에 의해서 個別的 支出을 引下하려고 하는 物質的 刺戟을 낳는다. 그런데 個別的 支出이 引下되는 限 結局은 社會的으로 必要한 支出도 引下된다. 이와같이 하여서 價值法則의 作用은 勞動生産性이 항상 向上된다는 法則과 生産力의 發展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價值法則을 이와같이 解釋하는 學者들에게 있어서는 價值的 諸指標에 立脚해서 支出의 活動과 結果를 正確하게 計算하는 것이 第一義的인 任務이지만 企業에 支出을 引下하던지 活動의 結果를 改善하도록 物質的으로 刺戟을 주어야 된다는 刺戟의 役割도 重要視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價值法則에 대한 極端的인 解釋은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價值法則이 全혀 作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解釋은 生産手段이 商品의 外被에 지나지 않는다는 스탈린의 解釋을 消費財에까지 擴大시켜서 解釋하는 것이다. 即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生産手段이나 消費物資도 相互依存하지 않는 私的 勞動의 生産物이 아니고 社會 全生産物의 所有者인 限 商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價值法則이 作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價值法則의 道을을 빌리지 않고라도 國營工業의 生産에 對象된 勞動量을 規定하는 可能性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即 蘇聯經濟의 發展은 價值法則에 從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蘇聯의 基本的 經濟法則, 國民經濟의 計劃的이고 均衡잡힌 發展法則에 從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價值法則은 生産의 「規制者」도 아니며 「規制者의 하나」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蘇聯經濟에 있어서 價值問題가 여러가지 方法으로 解釋되고 있음을 考察하여왔다. 그러면 이와같은 解釋의 混亂은 어디에서 由來하는 것인가? 筆者의 見解에 의한다면 이와같은 混亂은 思考方法의 混亂에서 起因하는 것 보다는 現實의 蘇聯經濟의 混亂과 價值法則의 概念을 가지고 이와같은 混亂을 정돈해보고자 하는 困難性에서 由來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Ⅺ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2) 消費財價格과 生産財價格

蘇聯經濟에 있어서 總價值와 總價格이 一致하는 것인가 혹은 乖離되고 있는 것인가의 問題는 蘇聯經濟學에서 價值法則을 論한 경우 中心的인 問題로 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이미 言及한바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端的으로 말해서 生産手段의 價格이 賤(싼)뿐만¹⁾ 아니라 兩者間에 相互依存關係가 없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生産手段의 價格이 싸다는 것을 一部の 學者들은 그것은 生産手段의 利用을 장려하는 結果가 되며 生産手段의 優先的 増大의 趣旨에 合致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콘드라세프가 確實하게 言及한바와 같이 生産手段의 價格이 萬一 價值以下로 現實的인 社會的 生産費보다 낮게 될 때 그것은 相對的으로 싸다는 幻想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幻想은 必然的으로 生産財의 浪費를 誘發하게 되는 것이다.

生産財價格을 싸게 하려는 政策은 生産手段의 利用을 增進하는 手段으로서 施行되어 왔으며 補助金制度에 의해서 더욱 뒷받침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政策은 結果的으로 價格構造를 價值以下로 極甚하게 離反시켜서 費用의 節約을 등한히 하며 이런 種類의 生産物의 浪費를 야기시키며 正確한 原價計算을 妨害하게 하였던 것이다.

註 1) 스투루밀린에 의한다면 蘇聯經濟에 있어서 生産手段의 全體가 2% 過少評價되고 있으며 消費物資는 4% 過大評價되고 있다 한다. 그러나 建設에 있어서는 生産物의 過少는 8%에 달하고 있으며 運輸와 商業企業에 있어서는 23% 過大評價되고 있다 한다.

그러면 消費財價格에 比해서 生産手段의 價格은 얼마만큼의 差異가 있는 것인가? 이 兩者間에는 所謂 去來稅만큼의 差異가 있는 것이다. 去來稅는 前述한바 있지만 國庫收入의 大宗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去來稅가¹⁾ 消費物資價格의 60퍼센트內外였음도 前述한바 있다. 換言하면 消費財의 價格은 生産財價格보다 生産原價外에 去來稅만큼 비싸다.

그러면 이와같은 現象은 價值法則으로 어떻게 說明되는 것인가? 이것은 生産財의 生産에 있어서 發生하는 價值의 一部分이 生産財의 價格에 있어서 實現되는 것이 아니라 消費財의 價格에서 實現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例컨대 鐵鋼生産에서 發生하는 剩餘價值가 빵의 販賣에 있어서 實現되었다는 것이다. 生産財部門에 있어서는 剩餘價值의 一部分이 利潤으로 實現되는 것에 그치며 大部分은 消費財中에 移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論法에는 一理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事態를 完全히 說明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去來稅의 源泉은 大部分의 경우 農産物인 것이다. 그런데 鐵鋼産業의 剩餘價值(去來稅)가 農業部門에서 實現된다는 것은 首肯할 수 없는 論法인 것이다. 따라서 生産財部門의 剩餘價值의 一部가 消費財中에서 移轉實現된다고 하는 것은 無理한 說明인 것이다.

그런데 蘇聯에 있어서의 消費財價格과 生産財價格의 差別化等으로 나타나는 價格과 價值와의 乖離는 國民經濟를 發展시킨다고 하는 具體的인 課題를 解決하는 方法으로 施行되고 있다는 것이다. 生産力の 發展을 刺戟하며 生産과 蓄積을 增加시키고 國民의 物質的 福祉의 向上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價格形成을 計劃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價格을 價值에서 計劃的으로 乖離시키며 價格이라는 카테고리를 國家의 經濟政策의 道具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價格이 價值에서 計劃的으로 乖離되었다는 事實은 價格은 적어도 價值法則의 適用과는 無關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價格은 價值의 貨幣的 表現도 될 수 없으며 價值法則은 價格의 前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價格은 다만 計劃과만 關聯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와같은 生産財價格과 消費財價格의 乖離는 蘇聯의 歷史的 現實이 그것을 要請하였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蘇聯에서는 投資 或은 資本蓄積을 形成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二重價格制度가 必要하였던 것이다.

蘇聯에 있어서는 資本蓄積이 主로 財政을 通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即 政府投資가 經濟成長의 根幹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財源은 租稅와 官業收入이다. 私有財産을 否定한다면 民間貯蓄은 거의 形成되지 않으며 또한 直接稅도 많이 徵收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에 있어서는 財政의 財源이 官業收入을 主로하는 것이지 租稅나 公債에 依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實은 官業의 都賣에서 小賣에 이르는 사이에 消費稅라고 할 수 있는 去來稅가 存在하여서 이것이 官業收入인 利潤控除과 並行하여서 蘇聯財政의 中心을 形成하는 것

註 1) 蘇聯의 歲入額과 去來稅

(單位: 억루블)

	A 歲入總額	B 去來稅	B/A		A 歲入總額	B 去來稅	B/A
1940	180.2	106.9	58.8	1950	422.1	236.1	55.9
1945	302.0	123.1	43.4	1951	468.7	247.8	53.0
1946	325.4	110.9	58.7	1952	509.9	260.7	51.1
1947	386.2	239.7	62.1	1953	539.8	243.6	45.1
1948	410.5	243.3	60.2	1954	572.5	234.4	40.9
1949	437.0	245.5	56.2	1955	590.2	233.2	39.5

資料: 岡總 (ソヴェト 工業生産の分析) 1956年, p. 185.

이다. 直接稅와 公債는 農民의 閫去來에 의한 利潤에 대하여서 課하여지는 것인데 財政收入 으로서는 約 一割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急速한 經濟成長은 全的으로 政府投資의 結果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資本形成 및 經濟成長에 있어서 去來稅가 얼마만큼 重要的 位置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資本形成의 財源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去來稅의 稅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前述한바와 같이 主로 農產物이다. 即 穀物 畜產物 或은 纖維製品等 農業生產物의 加工品이 主인 것이다. 蘇聯은 農產物을 廉價로 調達하여 높은 去來稅를 附加하여서 비싼 價格으로서 農民과 勞動者에게 加工生産物을 販賣함으로써 工業生産을 培養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資本形成方法에도 限界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全生産額의 八割以上을 占하고 있는 工業이 31퍼센트의 勤勞人口를 支當하고 있는데 反해서 二割도되지 못하는 生産이 43퍼센트의 勤勞人口를 支當하고 있는 狀態에 있어서 工業을 위한 蓄積의 收支를 農業에서 한다는 것이 困難하다는 것은 容易하게 想像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農業生産을 犧牲하여서 이룩한 在來의 資本蓄積方式은 하나의 限界點에 達하게 되어서 資本의 蓄積은 工業自體의 剩餘價値에 의해서 充當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客觀的인 事情下에서 스탈린이 價値法則의 妥當性을 消費財의 流通面에 限定한 것을 오늘의 蘇聯學者들은 그것을 生産財에도 適用하여서 價格形成의 原理로서의 地位를 여기에 부여하려고 하는 論理的인 根據가 形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生産財의 價格이 價値로부터 현저하게 乖離되고 있는 것을 是正하여서 價値와 가깝게 하려는 運動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콘트라세프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社會主義의 再生産의 過程中에서 價格에 두個의 基礎가 있어서는 안된다. 消費物資의 價値는 生産手段의 價値에 依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生産手段과 消費物資를 같은 態度로 評價하는 것은 客觀的으로 必要하다.¹⁾

萬一 生産手段의 價格自體가 引上하게 된다면 消費者의 부담이 되고 있는 去來稅의 어떤部分의 引下는 可能하게 될 것이며, 穀物을 購入하는 消費者에게 社會의 蓄積을 위한 負擔의 大部分이 轉嫁되었다는 事實에서 어느程度 解放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問題에 直面하게 된다. 萬一 國營企業에 있어서 利潤이 充分히 許容될 수 있으리만큼의 價格을 設定하는 것이 生産手段의 生産의 增加를 刺戟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같은 價格引上이 生産費의 騰貴나 生産手段의 浪費를 超來하게 된다면 充分한 利潤이 確保될 수 없는 것이 되며, 結果的으로 國營企業에 높은 利潤을 許容하는 것은 生産費의 節約을 加一層 不充分하게 하며 生産의 能率을 低下시킬 우려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傾向은 그리코프가指摘한대로 蘇聯에서는 價格과 價値가 逆의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는데에서 그 斷面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²⁾

註 1) 「콘트라세프」,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價値와 價格」(本原正雄譯編) : ibid, pp. 142—143.

2) 그리코프는 「蘇聯에 있어서의 價値法則과 價格形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蘇聯經濟의 價格은 戰前인 1940年の 價格보다도 현저하게 비싸며 復興期 및 第一次五箇年計劃의 처음에 存在하였던 價格보다 비싸다. 이 25—30년에 걸친 生産手段과 消費物資의 價格의 上昇은 勞動生産이 현저하게 增大되었다는 條件과 따라서 生産物의 價値가 거기에 應해서 低下되었다는 條件下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戰後發展의 特定時期에는 價値와 價値形態의 運動에 두 가지의 傾向이 나타났다. 即 生産物의 價値는 低下하였지만 重工業生産物의 原價와 都賣價格은 크게 上昇하였다.”

生産財의 價格引上에 있어서 이와같은 우려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生産手段의 價格을 引上하여서 消費財의 價格과의 差를 縮小시키자는 蘇聯經濟學者의 提案에는 合理的인 根據가 있다. 生産手段의 利用이 各地方의 國民經濟會議의 選擇에 一任되는 餘地가 생겨 個個의 企業에도 選擇의 範圍가 擴大될 때 그 價格을 높임으로서 浪費를 防止하는 것이 一層 必要하게 된다.

以上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蘇聯에 있어서의 生産手段의 現行價格下에서는 重工業과 農業에서 이룩하여지는 國民所得의 크기가 人爲的으로 의곡되며, 그와 反對로 輕工業 商業 運輸業에서 만들어지는 國民所得의 크기는 높い 評價된다. 이와同時에 採算性的 指標가 혼들려지며 輕工業과 商業이 國家에 있어서 가장 採算이 있는 經濟部門인것처럼 되어버린다.

따라서 價值에서 價格이 背離할 때 經濟學的으로 是認되는 目的과 許容되는 限界內에서는 客觀的으로 必然의이며, 社會主義經濟의 計劃의 指導가운데서 本質的인 役割을 한다는 命題는 再三 再吟味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VII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3) 利潤과 剩餘價值

剩餘價値의 生産은 資本制生産方法의 絕對律¹⁾이라고 規定한 맑스의 言明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여서 蘇聯經濟에 있어서 剩餘價値가 否定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前述한바 있다. 經濟가 成長하기 위해서는 剩餘價値는 여하한 經濟體制下에서도 必然的인 要件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剩餘價値는 맑스의 定式에 따른다고 할것 같으면 可變資本(v)에서 導出된다.

그러나 現行하고있는 蘇聯에 있어서의 生産過程에 있어서 剩餘價値는 當該生産物의 價格에 包含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勿論 從來 原價의 5~6퍼센트의 利潤을 原價에 附加한 것은 이러한 趣旨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스투루밀린이나 크론로트 및 보루 등은 生産過程中에서 생기는 剩餘價値를 當該生産物의 價格中에 包含시키려고 하고 있다. 卽 이들의 見解에 의한다면 價格은 $c+v+m$ 로 形成되어야 하는데 이때 m 은 v 에 比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투루밀린의 見解를 引用한다면 企業의 原價中에는 지금까지 c 와 v 만이 計算되었지 m 이 計算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m 의 額數가 알려진다면 換言하면 $c+v+m$ 로 計算된다고 한다면 社會的 價値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이 施行된다면 價值法則과 勞動에 따르는 分配의 社會的 原則과는 要求에 完全히 合致되며 그와 同時에 必要한 蓄積노루마 $m:v$ 를 안다면 計劃蓄積에 의하여 計劃된 投資를 充分히 充當할 수 있는 모든 生産物의 個別的 價値와 社會的 價値를 蘇聯의 루블로 直接 計算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生産財의 價格中에 剩餘價値를 算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價格에 收益性的 程度가 反映될 수 있는 것이다.

上述한바와 같이 스투루밀린의 方法은 原價中에서 v 에 대한 一定比率을 原價에 附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原價에 5~6퍼센트의 利潤을 附加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法을 使用하게 된다면 前述한바와 같이 價值法則의 趣旨에는 合致되는 것이지만 資本의 節約이나 效率을 높이기 위한 選擇의 指標로서는 不適當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方法下에서는 v 를 相對的으로 많이 使用하는 產業 或은 企業에 있어서는 相對的으로 많은 m 이 計上하게 되며 그 生産物의 價格이 그 比率만큼 引上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註 1) K. Marx, The Capital, p. 609.

같은 事實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 卽 c 를 相對的으로 많이 使用하고 있는 産業 或은 企業의 生産物價格을 相對的인 低位에 놓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萬一 이와같은 價格을 選擇의 指標로 한다면 c 에 대한 需要가 오히려 增加하며 c 를 浪費하는 生産方法이 優位的인 位置에 있게 될 것이다. 또한 剩餘價值率을 選擇의 指標로 한다고 하더라도 v 를 보다 많이 使用하고 있는 企業은 높은 剩餘價值를 發生케 할 것이며 c 를 많이 使用하는 企業은 낮은 剩餘價值를 發生케 할 것이기 때문에 勞動을 많이 使用하는 生産方法이 有利하게 될 것이다.

스투루밀린이나 크론로드가 생각하는대로 價格을 定하게 되면 같은 原價의 生産費를 構成하는 v 와 m 의 比率에 따라서 付加利潤額에 현저한 差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例를 들어서 剩餘價值率이 100퍼센트라고 한다면 $c=20$ $v=80$ 의 生産費를 構成한다면 價格은 $20c+80v+80m=180$ 이 된다. 그러나 反對로 $c=80$ $v=20$ 이라고 c 와 v 의 費用을 換置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價格이 $80c+20v+20m=120$ 이 되는 것이다.

스투루밀린이나 크론로드의 方式은 맑스經濟學과 調和되는 것이며 特히 勞動價值學說과는 完全하게 一致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檢討한바와 같이 이러한 方式은 現實的으로 經濟에 適用될 때는 여러가지 困難한 現象이 노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c+v+m$ 에서 m 을 v 와 聯關시키는 方式이 非現實的이고 非合理的이라고 非難하는 學者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例를 들어서 콘드라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提案에 의한다면 生勞動이 많이 使用되는 部門에서 價格이 相對的으로 높아진다. 이들部門에서는 利潤으로서 生産을 擴張하기 쉽지만 高度로 機械화된 部門에서는 豫算에서 融資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技術進歩의 장려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消費者的 利益도 되지 못한다.”¹⁾

콘드라세프외에 特히 말뤼세프는 現實的인 資料에 立脚해서 上記의 方式의 不當性を 論證하고 있다. 卽 그는 現實的인 經濟的인 要因이 價格形成에 가지는 意義를 明白히 하기 위하여 1956年의 두개의 發電所에 관한 實際的인 資料를 引用하고 있다. 그것을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이表는 가시루 스카야 發電所의 數字를 100으로 한 것이다. 이 두 發電所는 出力에 있어

가시루스카야發電所(火力)		루이 빈스코 시류 엘마코프 스키 뎀 第一號
年初에 있어서의 固定폰드의 價值	100	885
年平均의 流動폰드의 크기	100	24
年平均의 勞動者數	100	19
年間の 賃金폰드	100	22
年間の 電力生産高	100	98.2
勞動者一人當의 電力生産高	100	517
電力의 工場原價	100	43

(資料) 本原正雄譯編: 價格と價值 p. 94

서는 거의 同一하며 表示한바와 같이 가시루스카야 發電所는 石炭에 의해서 發電하고 있으며

註 1) 콘드라세프,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價值와 價格」(價格と價值)本原正雄譯編

루이빈스코 시류엘바코프스키 뎀 第一號는 水力發電所이다.

그런데 이 表에서 明白한바와 같이 年間 勞動者 一人當의 電力生産高 即 勞動生産力은 水力發電所에서는 火力發電所에 比해서 5.2倍(98.2 19) 만큼 더 크다. 여러 相異한 企業에서 生産되는 同種의 生産物 單位의 社會的 價値가 항상 同一하다고 할 것 같으면 루이빈스코 시류엘바코프스키 뎀 第一號의 勞動者는 가시류스카야發電所의 勞動者에 比하여 5.2倍만 큼 더 큰 價値를 自己의 勞動으로서 만들고 있는 結果가 된다.

그리고 水力發電所의 平均賃金은 火力發電所보다 16퍼센트 높다. 이것은 水力發電所의 勞動者는 火力發電所의 勞動者에 比하여 4.3倍나 더 많은 剩餘生産物을 尠연社會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特히 루이빈스코 시류엘바코프스키 뎀 第一號의 生産物原價와의 關係에서 計算된 採算性의 水準은 가시류스카야發電所의 水準을 5倍나 上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말뤼세프가 提示한 스투루밀린의 計算方式 即 1955年の 蘇聯에 있어서 石炭採掘工業의 賃金은 生産物原價의 64.1퍼센트였으며, 機械製作工業에서는 33.2퍼센트, 發電所가 平均 15.8퍼센트였으니까, 剩餘價値率을 100퍼센트로 한다면 自動化된 水力發電所의 利潤은 8~9퍼센트 機械製作工場은 22~25퍼센트가 되는데 反해서 採砂場은 50~60퍼센트의 利潤을 獲得할 것이라는 방식에 대한 明確하고 現實的인 反證이 成立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말뤼세프나 콘드라세프는 스투루밀린이나 크론로드의 方式이 非現實的이라고 斷定하면서 自己들의 代案을 提示하였다. 이들의 代案이란 어떤 것인가? 이들은 $c+v+m$ 에 있어서 m 을 $c+v$ 와 聯關시키려고 한다. 換言하면 減價償却費 生産過程에서 消費된 材料 및 勞動費用等を 剩餘價値와 聯關시키므로써 m 의 源泉으로서 v 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c 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우선 콘드라세프는 크론로드의 方式을 反駁하면서 剩餘生産物은 生産勞動에 의해서 創造된다는 命題는 論爭의 餘地가 없다고 強調하면서도

“그러나 果然 價格을 定하고 利潤을 分配할 때 우리들은 過去의 勞動機械裝置의 導入 덕분에 生勞動의 勞動生産性이 増大된다는 것을 잊어도 좋을 것인가? 이것은 決코 잊어서는 안 된다. 利潤額이 賃金의 크기와는 關係없이 生産物原價와의 關係에서 항상 定하여지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價格形成에 있어서 蓄積된 經驗도 깨끗히 拒否해서는 안된다.”¹⁾라고 明白하게 言及하고 있다.

이點에 있어서는 말뤼세프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即 모든 生産部門에 있어서 同一한 採算性의 水準을 定할 경우에 다만 어떤 部門에서 만들어지는 生勞動의 量이나 全流動 фонд額뿐 만 아니라 個個의 生産部門에 있는 固定фон드의 크기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말뤼세프에 의하면 技術의 裝備度가 높은 곳에서는 보다 적은 裝備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企業보다는 勞動生産性이 높기 때문에 勞動은 「보다 많은 價値」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맑스經濟學과 非맑스經濟學을 區別시켜주는 有名한 命題는 「資本의 生産力」이 蘇聯經濟에 있어서도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資本의 生産力」에 대해서는 맑스經濟學에 있어서 이미 試驗劑인 것이다. 即 맑스에 의하면 資本家에 있어서는 剩餘價値라는 觀念보다는 利潤率이라는 觀念에 더 執着한다고 한다. 따라서 資本家에게는 c 와 v 와의 區別을 할 必要가 없으며 資本의 全構成部分이 一律의으로 利潤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資本家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 것은 投下된 總資本에 대

註 1) 콘드라세프,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價値와 價格」 「價格と價格」 木原正雄譯編 p. 139.

2) 勿論蘇聯에는 이와같은 用語가 될 수 없으니 通宜上 資本과 같은 役割을 하는 фонд를 이렇게 使用하였다.

한 剩餘價値의 比率 即 利潤率인 것이다.

그러나 蘇聯에 있어서도 m 을 $c+v$ 에 聯關시키므로서 利潤이라는 概念이 發生하게 되었으며 더욱 그 利潤을 資本에 歸屬시키려고 하는 見解가 主張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現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換言하면 이것은 資本의 效率을 測定하는데 利潤率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와같은 方針은 「經濟指導에 있어서 價値法則의 積極的인 利用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뿐 아니라 오히려 蘇聯社會에 대한 貢獻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말뤼세프의 「높은 勞動生産性」或은 「보다 많은 價値」라고 할 때 이것은 筆者가 맑스經濟學을 吟味할 때 相對的 剩餘價値는 勞動力만이 可變資本이 될 수 있겠느냐는 問題가 現實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 筆者는 相對的 剩餘價値는 勞動價値說만 가지고서는 充分히 說明될 수 없다는 見解를 피력한바 있다. 이것이 蘇聯經濟에 있어서도 그대로 問題化되는 것이다.

말뤼세프가 「높은 勞動生産性」이니 或은 「보다 많은 價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맑스가 말하는 勞動量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生産物總價格에 의해서 測定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뤼세프의 方法은 「資本의 生産力」을 前提로 하는 生産價格論임을 알 수 있다.

蘇聯의 經濟學者들이 맑스의 命題를 認定하면서도 조심스럽게 異議를 提議하고 있음은 興味있는 일이다. 이에 v 서 發生하느냐 或은 $c+v$ 에서 發生하느냐하는 困難한 問題는 「資本論」이 出刊된 以來 거의 百餘年을 두고 學者들간의 是非의 對象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問題가 m 을 v 에만 直結시켜야 하는 蘇聯에서 $m:v$ 로서만 滿足할 수 없어서 $c+v$ 에 그 原因을 求하고 있는 것은 맑스理論에만 執着되어서 오늘의 蘇聯經濟의 價格構成을 論하려고 하는 學者들간의 하나의 奇現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같은 形態는 稀少價格決定에는 더 適切한 것이다. 왜냐하면 固定폰드나 或은 流動폰드의 使用에 대한 利子가 加해지게 되고 資本의 稀少가 이러한 價格形成에 反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뤼세프는 또한 新投資도 利潤率을 標準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基本投資는 資本主義의 諸條件下에 있어서의 價値規制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計劃性을 가진 均衡잡힌 發展法則에 立脚하고 있다는 見解와는 날카롭게 對立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考察로서 蘇聯에서는 現實적으로 말뤼세프等の 主張을 適用하지 않을 수 없음을 考察하여 왔다. 그런데 이와같은 現實的인 要請과 m 은 v 가 源泉이라는 從來의 價値觀과 어떻게 調和되고 克服될 것인지 細心하게 觀察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더 한 層 研究하여야 하는 것이다.

IX 스탈린의 맑스經濟學解釋

맑스 經濟理論이 蘇聯經濟에 얼마만큼 適用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우리가 스탈린이 맑스의 經濟理論 特別 價値論을 如何히 解釋하고 있느냐의 問題로 落着된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스탈린은 價値法則은 商品生産이 支配하고 있는 資本主義經濟下에서 作用하며 生産, 分配를 規制하는 原理이기 때문에 蘇聯經濟에서는 全然 作用하지 않는다는 見解와 蘇聯經濟에도 資本主義의 殘滓가 있어서 貨幣의 流通이나 財貨의 交換 異質勞動等の 現象이 存續하는 限 變容되고 있는 形態에 있어서 價値法則이 作用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非難하면서 蘇聯에 있어

서는 價値法則이 作用範圍와 規制力을 制限當하면서 通用되고 있다는 見解를 主張하고 있다. 그러면 資本主義의 商品生産이 아닌 蘇聯經濟에 있어서 價値法則은 如何히 作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스탈린에 의하면 蘇聯에서는 資本家가 없는 特殊한 商品生産이 行하여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國營企業의 部門과 共同經營의 形態인 콜호즈部門이 併存하여 있어서 後者が 그 生産物을 所有하고 處分되고 있는 形態를 取하고 있기 때문이다.¹⁾ 여기에서 말하는 商品은 基本的으로 國家 콜호즈 協同組合의 商品이기 때문에 全生産部門을 包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價値法則이 作用하는 範圍는 主로 個人的 消費對象 特히 商品流通에 賣買를 통한 商品交換에 있는 것이다. 生産部面에도 價値法則이 作用하기는 하지만 作用한다는 意味는 規制者로서의 意義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生産에 影響을 미치므로 企業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消極的인 面인 것이다.

스탈린은 價値法則의 影響이 있기 때문에 現在의 經營者는 合理的 運營의 精神을 刺戟받으며 生産原價를 引下하고 獨立採算性을 實現하여 企業의 收益性을 높이는 努力을 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價値法則이 生産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은 具體的으로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우리가 理解하는대로 그것은 生産物의 生産費의 計算을 貨幣로 表現한 價格에 의해서 行하여진다는 事實과 生産量을 無視하는 價格을 定하는 것은 生産의 障害가 되며 되도록 獨立採算으로서 生産費를 넘은 收益을 올리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意味할 것이다.

이와같은 概念은 맑스의 價値論과는 相當히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스가 말하는 價値라는 것은 商品이 自由競爭市場에 있어서 生産되고 流通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 成立하는 勞動價値學說의 概念이다. 그것은 單純히 商品이 一般的 交換手段인 貨幣에 의하여 그 交換價値를 나타낸다는 事實을 指摘할뿐만 아니라 그 交換價値의 크기는 그 生産에 社會的으로 必要한 勞動量에 의하여 決定하며, 勞動만이 價値를 形成하는 實質이라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에게 있어서는 前述한바와 같이 價値는 다만 賣買關係를 通하여 貨幣로서 價格이 表現되며 流通面에 있어서만 調節器로서의 役割을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스탈린의 이와같은 主張은 스탈린在世時의 蘇聯經濟學에 있어서는 支配的인 主流를 形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오스트로비차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商業과 貨幣의 存在를 認定하고 그와 同時에 價値의 存在를 否定할 수는 없다. 그것은 形態를 認定하면서도 內容을 否定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貨幣形態의 內容은 또한 價値이기 때문이다. 商品의 價格은 다른아닌 貨幣에 의하여 表現된 價値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²⁾

萬一 이것을 그대로 承認한다면 貨幣形態의 內容이 價値라는 것을 證明하기는 困難하며 그것이 그대로 蘇聯에 있어서 商品의 價格을 意味한다면 價値와 勞動量과는 關係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탈린의 맑스經濟學에 있어서의 難點이 蘇聯經濟에서의 計劃과 價値法則과의 關係를 如何히 맑스經濟學에 照應시키는가 하는 問題이다.

스탈린의 例를 든바와 같이 收益이 전혀 없는 重工業生産이 收益이 많은 輕工業에 優先하여 發達되고 있는 事實은 價格이 生産을 調節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註 1) 이에 대하여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두 基本的 生産部門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商品生産과 商品流通과는 우리나라 經濟體系에 있어서 必要하며 有用한 要素로서 存續하지 않으면 안된다”(스탈린 論文 p. 72)

2) 氣駕鍵三著: ibid. p. 17.

왜냐하면 價格과 生産費와의 差에 따라서 收益의 大小有無가 決定되는 것이므로 萬一 價格이 生産費보다 높지 定하여진다면 當然히 生産이 增大하는 것이 調節者로서의 意味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에서는 消費財이건 生産財이건 그 供給이 價格에 의해서 支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價值法則이 生産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맑스의 價值法則의 意味로서는 納得이 될 수 없는 것이다.

蘇聯에 있어서는 計劃이 蘇聯經濟의 發展法則이 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計劃에 있어서 經濟計算이나 經濟的 均衡을 價值法則에 立脚해서 立案되고 遂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計劃이 第一次의인 意義를 가지고 있는 蘇聯에서는 計劃에 의해서 生産의 種類와 量이 決定되는 것이므로 價格(價値의 貨幣的 表現으로서의)에 의해서 調節된다고 보기가 困難하므로 兩者間에는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상태하에서 若干名の 經濟學者(勿論 蘇聯經濟學者들은 아니지만 포렌드의 부르스 東獨에 베렌스 및 베나리等)들이 計劃性을 가진 均衡잡힌 發展法則이 아니라 市場價格法則과 平均利潤率의 法則을 換言하면 資本主義下에서의 價值規制者를 生産規制者로서 받아드리려고 하고 있음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스탈린」의 死後 現在에 이르러서는 價值法則의 意味를 넓게 解釋하여 商品生産의 範圍를 擴大하여서 生産財까지를 包含시켜서 生産財價格도 또한 消費財과 같이 價值法則의 作用을 받는 것이다. 規定한 것은 이미 檢討한바 있거니와 이것이 맑스經濟學의 立場으로 본다면 더 가까운 解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X 價值法則과 聯蘇經濟學者

價值法則을 둘러싼 蘇聯經濟學者들의 見解는 本論文의 到處에서 引用檢討되고 있다. 그러나 蘇聯經濟學者들이 價值法則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見解를 系統的으로 考察해보는 것은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價值法則을 研究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價值法則을 둘러싼 激甚한 論爭中에서 우리가 共通의으로 느낄 수 있는 한가지 現象은 蘇聯經濟學者들이 모두 맑스 經濟學에 充實하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비록 價值法則에 대해서 極端的인 見解差異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맑스에 가깝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經濟學者들中에는 맑스經濟學을 文字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며 蘇聯經濟라는 現實的인 問題를 解決하려는 過程에서 맑스經濟學에서 멀리 離脫되어 나간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兩極端中에 맑스經濟學을 認定하면서도 解釋上에 差異를 보여 주고 있는 여러學者群이 있는 것이다.

蘇聯의 一部 經濟學者들은 蘇聯經濟가 商品生産經濟가 아니기 때문에 價值法則이 作用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言明한바 있다. 이 部類에 屬하고 있는 學者들은 蘇聯의 經濟가 맑스니 엥겔스가 묘사하고 있는 資本主義社會를 脫皮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價值法則이 作用할 수 없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價值法則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國營工業의 生産에 對象화된 勞動의 量을 規定하는 完全한 可能性이 蘇聯에는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原價 價格, 利潤은 價値 或은 價値의 一部分의 表現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베·이·레바세프 및 前述한바 있는 엔·이·베두라等이 이에 屬한다.

게·테·고바레프스키와 베·아·소보리等은 蘇聯經濟에서 國家的 部門内部에 商品關係가 存在하는 것을 否定하거나 或은 스탈린의 例의 「蘇聯邦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經濟的 諸

問題」를 追從하여서 生産手段은 그 流通이 所有者의 交替를 동반하지 않는 限 商品이 아니라 고 認定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價値法則이 商品生産아니고서도 作用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蘇聯經濟에서는 商品 資本主義의 經濟를 規制하는 價値法則이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勞動支出과 欲望間的 照應을 要求하며 國民經濟의 諸部門間에 勞動을 正當하게 配分하는 것을 要求하며 社會的 勞動의 節約을 要求하는 法則이 作用하는 것이다. 이것이 所謂 變容된 價値法則인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蘇聯經濟學者들은 蘇聯經濟에도 商品生産이 存在하고 있으며 따라서 價値法則이 作用하고 있다는데 意見을 같이하고 있다.

大部分의 經濟學者들이 크론로드가 主張하는바와 같이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價値法則은 國民經濟의 均衡을 規制하는 主要하고 決定的인 힘으로써 即 生産의 規制者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마이켄베루가 말한것 처럼 蘇聯의 經濟發展의 어떤 時期에서 國家는 小賣價格을 引上하지 않을 수 없으며 生産手段과 消費物資와의 價格水準에 상치점을 發生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價値法則을 蘇聯經濟發展의 具體的인 歷史的 諸條件에 의해서 說明하려는 過程에서는 價値法則은 規制者로서의 役割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투루밀린은 國民經濟의 計劃性을 가진 均衡잡힌 發展의 法則을 價値法則의 廢止로 보지 않고 價値法則과 交代하는 法則 即 發展된 蘇聯經濟의 條件下에서 價値法則이 變形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에스·제·보루도 이와같은 見解에 同意하면서 價値法則을 生産을 規制하는 法則으로 보는 見解에 異議를 提唱하였다.

그러나 구리코프는 이와같은 命題는 正當하지 못한 것이라고 否認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價値法則의 否定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리코프는 價値法則은 價格의 規制者이지만 蘇聯에서의 生産發展에 規制者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否定한다. 이러한 見解는 아카데미 會員인 베·에스·넴치노프에 의해서 支持를 받고 있다. 넴치노프는, 價値法則은 生産手段의 生産이나 消費物資의 生産에도 作用을 미치며 生産手段의 價格形成은 價値水準에 立脚해서 行하여 지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에스 말뤼세프는 以上の 諸學者들의 見解와는 相異하게 商品價値에 立脚해서 直接 價格을 設定하려는 見解를 排斥하였다. 말뤼세프는 價格形成의 基礎로 되는 것은 生産價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 있어서의 生産價格은 資本主義의 條件下에서 보다는 原則적으로 別個의 社會的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價値의 한層 더 發展한 한層 더 成熟한 具體的인 形態로서의 生産價格인 것이다. 이와같은 方式으로 價格이 定해지지 않는다면 個個部分의 採算性이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의 間격이 생긴다는 것은 앞서 檢討한바 있다. 말뤼세프에 있어서는 採算性이라는 것이 原價 或은 賃金에 대한 關係에서 規定하는 것이 아니다. 企業의 모든 固定 фонд 및 流動 фонд에 대한 關係로서 規定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見解는 디·콘드라세프에 의해서 支持를 받고 있다. 即 콘드라세프에 의하면 利潤額이 賃金の 크기와는 關係없이 生産物價値와의 關係에서 恒常 決定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한다.

엘·에프·마카로바는 生産手段의 價格과 消費物資의 價格間的 間격을 生産의 增大(供給)가 有效需要(需要)의 增大에 比해서 뒤진데서 오는 現象이라고 規定짓고 있다. 이 女性學者에 의하면 價格은 크론로드가 提案하고 있는바와 같이 單純하게 現在 實行되고 있는 價格形成方法을 變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價格을 價値에 接近시키는 過程은 國內市場에 있어서 商品의 需要와 供給과의 相互關係를 고려하여서 점차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事實 消費財에 관한 限 蘇聯의 價格形成은 需要供給에 立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消費財의 小賣價格은 生産費에 구애받지 않고 一定比率의 去來稅를 附加하여서 販賣되고 있는데 去來稅率은 生産費에 대한 一定比率은 아니다. 그런데 稅率을 定하는 條件은 總稅收入額과 個個의 消費財에 대한 購買力인 것이다.

供給이 計劃되어 있기 때문에 需要에 充分히 민감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은 必히 想像할 수 있으나 供給이 需要에 絶對 초연할 수 없음도 容易하게 推測할 수 있다. 따라서 價格形成에 있어서의 供給과 需要間의 考察은 現實的인 要求에서 出發한 것으로 注目되는바다.

XI 結 論

蘇聯經濟에 價值法則이 作用하는가? 萬一 作用한다면 如何히 作用하느냐는 問題가 提起되자 곧 商品生産與否가 價值問題에 앞서 解決될 것이 要求되었다. 우리는 우선 蘇聯經濟에서 商品生産이 可能하다는 것을 假定하면서 本論으로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假定을 處理할 段階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考察에서 蘇聯에서는 消費財에 대하여서는 商品이라고 認定되어 왔고 스탈린死後 最近에는 生産財에도 商品의 性格이 規定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商品生産의 必然性은 蘇聯의 生産에 있어서 두가지의 基本形態 即 國家的 形態와 物호즈的 形態의 存在에다 根據를 두고 있다.

大部分의 蘇聯經濟學者들도 上記의 命題를 肯定하고 있다. 即 社會的 生産의 兩部分間에 廣範圍한 交換이 存在하고 있는 社會에서는 交換過程에서 어떤 生産物의 商品이 商品으로 交換되며 다른 生産物이 商品이 아니라는 狀態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說明만으로는 生産된 生産物이 商品이 되는 것이라고 完全하게 納得할 수 없는 것이다. 크론로드도 社會主義所有에 두가지 形態가 存在한다고 하여서 蘇聯經濟에서의 商品生産이 必然화된다는 說明을 非難하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生産物이 그 속에 포함되고 있는 價値의 等價補填에 立脚해서 經濟的 流通을 行할 경우에는 그 生産物은 商品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說明이 보다 論理的인것 같으나 이러한 商品은 前資本主義나 資本主義에도 存在하는 것이 되어 價值法則을 說明하는데 混亂이 發生된다.

그리하여 蘇聯에서는 商品生産을 하나의 既存의인 事實로서 認定하려고 하는 傾向이 있으나 이것도 正當한 態度는 아니다.

맑스가 規定한대로 價值法則이 作用하는 商品을 資本主義社會가 아닌 蘇聯經濟에서 論及하는 것은 困難한 問題인 것이다. 「商品 아닌 商品」의 性格을 가진 生産物에 대한 定義는 앞으로도 研究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앞서도 言明한바와 같이 全體勞動者가 自己들의 全體의 所有物인 消費物資를 商品으로서 購入하는 것은 確實히 모순인 것이다. 蘇聯에서 商品生産이 可能하다는 結論이 나온다면 그것은 資本主義와 많이 接近되는 可能性을 提示하게 되는 것이며 萬一 「特殊商品」으로 存在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價值論도 再檢討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맑스가 資本主義社會에서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斷定한 價值法則을 蘇聯經濟에서 論難할 必要가 있는 것인가? 맑스가 言及한 대로 (資本論 三卷 p. 992) 勞動時間의 調整과 相異한 生産部門間의 社會的 勞動의 配分 및 여기에 關聯하여 帳簿의 記帳이 점점 重要度を 加한다는 意味에서 價值法則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로빈손(John Robinson)이 말한바와 같이 價值概念을 使用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表

現할 수 있는 것이다. 事實 蘇聯에 있어서는 價値法則이 다음과 같은 役割을 하는 것이 重要な 部分이다.

“The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various kinds of labor are not realized directly, by means of the” natural measure of labor “labor time but indirectly by means of accounting an comparison of products of labor of commodities”¹⁾

그리하여 여기에 말뤼세프를 中心으로해서 「生産價格論」이 擡頭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蘇聯經濟의 前提가 되고 있는 맑스의 勞動價値學說을 얼마만큼 容納하여야 하는 問題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例를 들어서 맑스는 勞動만이 生産的이라고 하였는데 資本主義下에서는 「勞動의 生産力은 마치 温室안에서 자라나듯이 成熟되어진다」(「資本論」第一卷 p. 641) 그러기 때문에 資本은 生産的이라고 말하든, 資本은 勞動을 生産的으로 하기 위해 必要的한 것이라고 말하든 別差異가 없는 것이다.

맑스가 展開한 勞動價値學說은 古典經濟學의 價値說을 集大成한 것이지만 主觀的 (John Robinson) 價値學說 및 마샬(Alfred Marshall)의 절충價値學說과 더불어 完成된 것이 아니라 많은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蘇聯經濟는 二重的으로 問題에 直面하게 되는 것이다. 蘇聯經濟가 반드시 맑스經濟學의 範疇에 屬해야 할 必然性은 없는 것이다. 다른 經濟理論이 여기에는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의 研究課題다.

參 考 文 獻

John Robinson, “An Essay on Marxian Economics”. 1942

Karl Marx, “The Capital” The Modern Library

Nicolas Spulber, “The Soviet Economy” 1962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XXXIV Sep. 1944, vol LII No.1 March, 1962

Rudolf Schlesinger, “Marx, His time and ours” 1951

Charles Betlheim, Les Problèmes Théoriques et Politiques de la Planification, 1951

G.D. Kousvulos, “Key to Economic Progress,” 1958

都留重人, 現代資本主義의 再檢討 1961

中山伊知郎編, 資本蓄積의 研究, 1957

東洋經濟新報社, 現代社會主義講座 II 卷 IV 卷 1957

木原正雄譯編, 價値と 價格의 理論, 1959

氣賀健三, ソビエト經濟의 研究, 1959

宇野弘藏, 經濟原論 上, 下卷, 1962

宇高基輔編, マルク스經濟學 I, II 卷, 1961

ソ聯聯邦科學院經濟學研究所著, 經濟學教科書 I—IV 卷 1961

尹元求著, 맑스主義의 批判的 研究, 1961

註 1)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XXXV Sep. 1944.